

농어촌公 충북본부, 폭염대비 공사현장 안전조치 점검

✎ 성기욱 기자 | ☎ 승인 2025.07.09 16:12

양성감곡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현장 방문



양성감곡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현장 점검 모습 (사진 제공=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)

[충남일보 성기욱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충북도청과 함께 지난 8일 양성감곡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조치 사항을 점검했다.

이번 점검의 목적은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계속됨에 따라 혹서기(7~8월) 건설현장의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.

현장을 방문해 폭염대비 안전조치 사항 및 5대 기본수칙 준수(▲충분한 수분섭취 ▲바람과 그늘을 활용한 휴식 ▲적절한 휴식시간 보장 ▲보냉장구 비치 ▲응급조치 체계마련) 사항을 점검했다.

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주까지 혹서기 폭염 시간대(오후 2시~5시) 휴식시간 준수, 휴게 시설(쉼터)설치, 생수 및 식용소금, 포도당 비치 여부를 집중 점검해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.



성기욱 기자 skw9749@naver.com